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의미 있는 작업'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송병남*, 전병진**, 이재신**, 김수경**

*선우행복마을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어떠한 작업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작업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자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7명에게 심층 인터뷰를 2011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약 2개월간 각 3~4회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이 요양시설에 거주하면서 겪는 경험에 대하여 반복되는 이야기나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은 Giorgi가 제안한 4가지의 구체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결과 :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의미 있는 작업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7개의 의미 단위, 11개의 하위 구성요소, 4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로는 선행과 봉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친구 만들기, 종교적 활동으로 나타났다.

결론 :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요양시설에 거주하면서 '선행과 봉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친구 만들기', '종교적 활동' 등의 의미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작업치료사들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중재할 때 이러한 의미 있는 작업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주제어 : 요양시설 노인, 의미 있는 작업,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I. 서 론

최근 인구 사회적 동향을 살펴보면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통계청(2006)에 서는 2000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노령인구가 7.2%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08년에는 10.3%,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되어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통계청, 2009).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하여 자연스런 노인부양

문제를 포함한 노인문제를 낳게 되고, 노인부양문제는 상당한 사회적 위협요인이 되었다(통계청, 2006).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최승완, 2008).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들이 월 30만~40만원의 부담만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민경중, 2009).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요양시설 192개소의 신축을 계획하였다(보건복지부, 2008). 국민건강보험공

단(2011)의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3,751개, 재가시설은 11,228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요양시설의 입소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요구하는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중의 하나이다(이혜경, 2008). 하지만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은 생활환경의 변화, 사회적 관계로부터 격리 등으로 삶의 분절, 정서적 절망감, 상실, 고독감 등을 느끼게 된다(차주원, 1991). 그럼으로 인하여 노인은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김귀분 등, 1999). 사람에게 있어 노년기 생활을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되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작업치료 분야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로 의미 있는 활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활동이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Funaki, Kaneko, & Okamura, 2005; Gregory, 1983; Nilsson & Fisher, 2006). 작업치료에서 활동(activity)은 작업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클라이언트(client)에게 의미 있는 활동들이 모여 하나의 작업이 된다(이재신, 이택영, 이지연과 유은영, 2004). Evans(1987)는 의미 있는 작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현재하고 있는 것, 즉 목표 지향적이고 내적 만족을 가져다 주고 문화적으로 알맞은 활동에 사람이 종사하고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인간의 활동에 대하여 연구하는 작업과학 학자(occupational scientist)들은 인간의 존재가치는 자신에게 중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Kielhofner, 1995). 작업치료 분야에서 활동에 대한 수행 정도를 평가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이 흥미와 가치를 느끼는 활동의 정도,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능력과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Smith, Kielhofner, & Watts, 1986). 신체활동을 통해서도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Rejeski, Brawly, & Shumaker, 1996).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노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의미 있는 작업과 활동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 아닌 주로 양적인 자료 분석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양적연구와는 달리 인간의 사회적 경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렇게 형성된 사회경험은 어떻게 인간

삶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가와 같은 사회경험과 관련된 질문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를 선택하였다(신경림, 조명옥과 양진향, 2004). 그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 대상자들의 기술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경험된 현상의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한다. 즉 대상자의 의식의 내용과 구조를 상세히 묘사하고자 하며 그들 경험의 질적 다양성을 이해하고자 하고 그것들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신경림, 1997),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로 사회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연구이다(이현주, 2005). 이는 수량화하기 곤란한 인간의 심층에 있는 의식이나 행위의 동기 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 매우 적합하다. 이것은 곧 대상자의 내부자적 관점에서 의미들을 밝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구 질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보다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현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내부자적 관점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의미 있는 작업에 대한 본질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경험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시설에서의 작업치료 중재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좋은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비확률적인 표본추출법 중의 하나인 목적적 추출법을 사용하였다(이충휘, 2011). 초기 연구 대상자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요양원에 거주하는 65명의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이중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MMSE-K)를 사용하여 인지기능에 손상과 의심이 없는 23점 이상인자(박중환과 권용철, 1989)로 심층 면담 및 인터뷰를 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자신의 경험을 원활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13명을 선별하였다. 이중 연구자가 설명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듣고 참여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참여에 거부한 6명을 제외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7명을 연구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양한 예술적 경험의 원천과 자료를 활용하는 해석학적 현상학과는 달리, 주로 대상으로부터 주어진 언어라는 텍스트에 초점을 둔 기술과 분석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과학적 자세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볼 때,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노인의 의미 있는 작업의 의미와 본질을 모호하지 않은 학문적 용어의 형태로 전환하여 제시하고, 도출된 구조 속에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일관된 기술의 형태로 제시한다.

따라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의미 있는 작업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모호하지 않은 학문적 용어의 형태로 전환하여 제시하고, 도출된 구조 속에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일관된 기술의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노인의 의미 있는 작업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자료 수집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1년 3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약 2개월간 연구 대상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한 내용은 모두 녹취하여 녹취록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연구에 참여하기 전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녹취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면담을 하기 전에도 녹취에 대한 설명을 상기시켜 녹취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였다. 면담은 대상자들로부터 반복해서 같은 대답이 나오거나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되었는데 면담 횟수는 3~4회까지 진행되었다. 면담과정에서 연구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연구자의 느낌이나 생각, 연구 대상자의 행동 등을 필드노트(field note)에 기록하였다. 면담시간은 최소 50분에서 최고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며, 장소는 작업치료실, 거실, 생활실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의 질문은 노인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의미 있는 작업은 무엇인가?이며, 이에 따른 인터뷰 자료는 표 2와 같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

	나이	성별	학력	종교	입소기간	이동수단	MMSE-K
대상자 1	74	여	초졸	천주교	3년	완전독립	26
대상자 2	85	여	초졸	기독교	3년	완전독립	28
대상자 3	88	여	무학	기독교	3년	완전독립	25
대상자 4	65	남	초졸	무교	3년	완전의존	25
대상자 5	77	남	대졸	기독교	2년	완전의존	30
대상자 6	82	여	고졸	천주교	3년	완전독립	28
대상자 7	85	여	무학	무교	1년	완전독립	24

표 2. 연구 질문에 따른 인터뷰 자료

연구질문	인터뷰 자료
노인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의미 있는 작업은 무엇인가?	1. 요양시설에서 무엇을 하면서 지내십니까?
	2. 요양시설에서의 생활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3. 치매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4. 어르신이 생각하시는 종교는 어떤 의미입니까?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Giorgi(2003)의 4단계 분석방법을 따랐다.

첫 번째 ‘전체인식(sense of the whole)’ 단계에서 연구자는 인터뷰가 끝나고 바로 녹취록을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당일 녹취록을 작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주말을 이용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녹취록의 작성 시간은 대상자 한 명당 짧게는 세 시간에서 길게는 다섯 시간이 소요되었다. 전체적으로 연구할 내용을 인식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어떤 특별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녹취록을 읽었다. 이 시기에 연구자는 스스로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시도하며 연구 대상자가 정확하게 표현했던 의미를 그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의 편견과 전문지식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음성자료와 녹취록을 여러 번 읽고 들으면서 대상자의 기술 전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의미 단위를 구분’ 하는 단계이다. 각각의 대상자들의

진술로부터 전체적 인식을 얻은 후 연구자는 대상자 진술문으로 다시 돌아가 작업치료학적 입장에서 노인의 생활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작업에 초점을 맞춰 의미 단위를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의미 단위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7명의 연구 대상자로부터 59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했다. 그 다음에는 분류된 모든 의미 단위를 모아 연구자의 입장으로 기술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일상적 표현을 학문적 용어로 변형’ 하는 단계로써 구분해 놓은 의미 단위를 서로 대조하면서 관련성을 찾고 반성과 자유로운 상상적 변형을 통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신경림 등, 2004). 즉 의미 단위들을 서로 대조함으로써 관련성을 찾아내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문적 표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인 ‘변형된 의미 단위들을 구조로 통합’ 하는 단계에서 연구자는 학문적 용어로 기술된 의미 단위들로부터 구성 요소들을 도출해내고 여러 구성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찾기 위해 ‘자유변경기법’을 사용하였다. 즉 노인이 경험하는 의미 있는 작업의 ‘작업치료학적 에센스’는 무엇인지를 계속 심사숙고하였다. 또한 마지막에 도출된 경험의

Giorgi의 4단계 분석방법의 적용



그림 1. Giorgi의 과학적 현상학에서 따라야 하는 구체적 단계들 (신경림 등, 2004 재구성)

일반적 구조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연구 대상자들로부터 얻어진 원 자료로 돌아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를 점검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 4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그 하위 구성요소로는 11개가 도출되었다. Giorgi의 4단계 분석 방법을 토대로 한 연구자의 분석과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사항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와의 면담 전에 연구자에 대한 소개와 연락처,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대상자의 자발성 및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처리, 면담내용의 녹취처리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기록하여 큰소리로 읽으면서 설명해 주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문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과거에 서명으로 인해 빚을 보증 했거나 그 외의 지장 및 서명 자체를 거부하는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녹취로 대체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모든 면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적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수시로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대상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녹취된 내용의 녹취록에도 대상자들의 이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정 기호로 표시하였다.

6. 질적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G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4가지 평가기준을 따르고자 하였다(이현주, 2005).

첫 번째, 사실적 가치(true value)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인 신뢰성(credibility)이라 할 수 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출된 결과를 참여 노인들의 원래 진술로 돌아가 그 맥락과 일치하는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또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요양시설에 관한 연구 등을 꾸준히 접하면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진술한 내용들과 비교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녹취록과 녹취를 계속해서 들음으로 인해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적합성이라는 개념으로 양적 연구에서 외적 타당도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의미 있는 작업에 관해서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초기 13명의 대상으로 시작하여 본 연구의 목적이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참여에 거부의를 밝힌 6명을 제외하고 7명의 대상으로 압축하는 과정은 적용성을 염두에 두고자 한 것이었다.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나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면담을 하여 의미 있는 작업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다.

세 번째, 일관성(consistency)평가는 양적 연구에서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의 관찰과 분석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질적연구는 감각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현실의 경험과 환경의 독특성을 강조하므로 공통적인 반복이 아니라 경험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연령, 성별, 학력과 노인에게 중요한 변수인 종교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자료의 범위를 넓혔다.

네 번째, 중립성(neutrality)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과정과 결과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평소에 환자와 너무 친분이 있어 연구자의 가정이나 선 이해가 개입될 요소가 없는 노인들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결과를 분석할 때 판단중지(epoché)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성공적인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작업

1) 선행과 봉사

(1) 치매노인에 대한 선행과 봉사

낮선 환경에 적응을 하고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따른 다양한 작업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불편하지만 인지적으로 건강한 자신이 주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선행과 봉사를 하고 작은 도움이지만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자신에게 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밥을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또 안 먹고 있어

요. 불쌍하드라고요. 그래서 내가 휠체어 옆에 (그 노인을) 들어가게 한 다음에 밥을 줬지요. 그럼 또 잘 먹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고맙다고 하니... 나도 기분 좋지요. 좋은 일 하고 칭찬도 받으니까요.”

“내가 이 사람들 눈이 돼주고 이 사람들은 내 다리가 돼주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거지... 누군가를 위해 살고 그렇게 산다는 게 참 좋은거 같아요. 서로 도우면서 사는거지요.”

(2) 고마운 사람들에게 봉사와 선행

요양보호사들에게 도움을 받기만 하면서 계속되는 미안함이 생기게 되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해 탐색하고 이에 맞는 작업을 찾아 수행 하게 된다. 대그룹 작업치료를 시작할 때 작업치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노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거나 참여를 하더라도 반응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빨래가 꼭 선생들 청소할 때 오드라고요. 그래서 내 옷 챙기고 하면 나 때문에 산다고 그러지... 나 같은 늙은이 땀에 살겼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볼링 하는데 다들 안하데... 억지로라도 데려와야 그나

마 하지... 내가 그냥 도와줄까 하고... 한다고 하고... 먼저 했던 거야...”

2)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자녀를 위한 작업 수행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작업수행이었다. 자녀들에게 안정을 주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신보다 자손들을 생각하는 연장자로서의 역할을 볼 수 있었다. 현재의 자신보다는 미래의 자손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과거에 자녀들을 위해 헌신을 하였다면 자금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이 했던 헌신을 자녀에게 해달라는 것으로 보였다.

“돈을 모아 뒀다가 손자가 같이 오면은 용돈 쓰라고 돈을 주지... 그런데 용돈이라도 주면서 내가 애네 들한테 할 수 있는게 있잖아.”

“둘째딸이야... 나 불라고 아침부터 집에서 나와서 보고 얼마 있지도 못하고 가야돼... 배가 끊기거든... 지야... 애들 다 시집, 장가보내고 오는 거지만... 그래도 지네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큰 며느리가 와서 그래요. 어머님 언제든지 불편하시면 오세요. 큰 며느리도 이제 60인데... 마지막까지 애들한테 짐이 되기는 싫어요.”

표 3. 요양원에서 입소 초기의 의미 있는 작업에 대한 상황적 구조 진술

차원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요약
성공적인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작업	선행과 봉사	치매노인에 대한	치매 노인을 위해 봉사하기
		선행과 봉사	봉사자체에 의미 부여하기
		고마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세탁물을 직접 개기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선행과 봉사	식사시간에 치매노인 식사시키기
		연장자로서의 역할	자손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기
			자손의 미래를 생각하기
	친구 만들기	함께 이야기할 친구 만들기	대화를 통하여 친구가 되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가기
	종교 활동	자신을 위한 종교 활동	영성과의 교감을 위해 기도하기
			예배시간에 헌금하기
		타인을 위한 종교 활동	치매노인을 위해 기도하기
			다른 노인들을 전도하기
			성경의 순리대로 봉사하며 살기

3) 친구 만들기

요양원이라는 하나의 사회생활에서 요양보호사와 치료사와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주변의 노인들과 친구를 만들어 상호작용을 하였다. 자신과 같이 인지기능은 좋지만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찾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가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친구가 되기도 하였다.

“여기 늙은이 중에 말은 잘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말하다보니 멀쩡해요. 그래서 친해지게 됐지요. 친구 하나 생겼지요.”

“내가 휠체어 처음 탔을 때가 생각이 나드라고요... 그래서 여기(바퀴)잡고 앞으로 밀고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시켰더니... 할라고 하드라고요... 앞에서 가고 그랬더니... 형님, 형님 하면서 잘 따라 오드라고요.”

4) 종교 활동

(1) 자신을 위한 종교 활동

자신의 내적인 자존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종교 활동을 한다. 자존감은 기도를 함으로써 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느끼게 된다. 또한 시간이 무료할 때에 성경책을 보는 것은 효과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혼자서 주도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감을 얻게 된다. 또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을 물질적인 방법으로 내면서 만족감을 얻게 된다.

“자기 전에 항상 예배드리고 자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자요. 그러면 천주님이 내 옆에서 들어주시는거 같아요.”

“기도를 하면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같애. 기도하면 대답해 주시는 거 같고. 기도는 해도 해도 모자란거 같아요.”

“몇 천원씩 하재. 내가 예전처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거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보답은 못해도 헌금이라도 하니까 마음이 놓여.”

(2) 타인을 위한 종교 활동

노인에게 종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기능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교회가 모든 연령층을 골고루 사귄 수 있게 맺어주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줌으로써 소외감을 감소시켜 준다. 또한 자신이 받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종교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타인에게 봉사하는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

“내가 잘 때 적응 잘하고 항상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지요. 다들 천국 가서 같이 보게 해달라고...”

“종교도 없다고 하드라고... 교회라면 천국 간다고... 안 간다고... 나홀은 그랬을 거야. 밤에는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언젠가부터 또 가자고 하드라고...”

2. 좋은 죽음을 위한 의미 있는 작업

1) 좋은 사후를 위한 선행과 봉사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아 사후에 대해 불안해 하지만 적어도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면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사후에 나쁜 곳(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그래도 뭘 할 수는 없지만 서도 여기 노인네들하고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에는 안가겠지요. 난 정말 나쁜 짓 안하고 살았어요.”

표 4. 죽음을 앞둔 현재의 의미 있는 작업에 대한 상황적 구조 진술

차원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요약
좋은 죽음을 위한 의미 있는 작업	선행과 봉사	좋은 사후를 위한 방법	종교 활동은 안하지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선행하기
	가족구성원	가족과의 관계 정리	가족과 관계 끊기
	으로서의 역할	연장자로서의 역할	자손을 먼저 생각하기
	친구 만들기	임종을 함께 할 친구들	사이가 좋지않은 노인들과 화해하기 주변사람들과 원만한 관계유지하기
	종교 활동	사후를 위한 종교 활동	죽음을 편하게 생각하기위해 기도하기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성경공부하기 종교 믿기

2)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

(1) 가족과의 관계 정리

자녀를 낳고 키우는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임무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연장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죽음을 앞둔 노인은 자녀들에게 자신보다 자손들을 위해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자주 오냐... 그냥 너네 애들 잘 키우고 남편 잘 지키고, 죽을 때나 와서 고생해라 그랬지...”

“엄마 얼굴 보러 왔다고 하면은 내 얼굴이 뭐 그리 비싸다고 그렇게 오냐고 그러재... 너그들끼리 애덜하고 놀러 가라고 하고, 죽을 때... 자식들도 편안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야...”

(2) 연장자로서의 역할

자신보다는 자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입소초기의 역할과 같이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나서도 자식, 후대의 자손을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식들 잘 키워서 이렇게 면회도 오고, 이제는 우리 애들도 지네들 자식들 위해서 살아야지요.”

3) 임종을 함께 할 친구 만들기

입소초기에 만든 친구를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뒤뜰린 관계를 처음처럼 원만한 관계로 맺으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여기에는 자신이 죽었을 때에 슬퍼할 사람이 가족 뿐 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슬퍼해주었으면 하는 이유가 있었다.

“OO 할머니는 내가 그렇게 싫은가봐요. 이제 적을 만들어서 뭐해요. 친하게 지내다가 죽는 거지... 살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계속 말을 거는데... 대답을 안하네요.”

“죽는 사람들 보면 상가집에 사람이 많나, 적나... 그걸로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이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슬퍼하는 사람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4) 사후를 위한 종교 활동

입소초기까지는 자신의 심적인 안정과 다른 사람도 종교를 믿기를 바라면서 전도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면 죽음을 앞둔 현재의 종교 활동은 사후를 위한 종교

활동이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주로 기도로 죽음에 대해 편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성경책에 나오는대로 천국이 있다는 확신과 함께 천국에 가기위한 방법들을 스스로 또는 예배시간에 성경공부를 위해서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사후를 위해 종교를 개종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도는 언제나 해요. 좋은데 가게 해달라구요. 그리고 OO할머니나 OOO할머니도 좋은데 가게 해달라고...”

“죽는거야 무섭기는 하지... 가끔은 꿈도 꾸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주시는 길로 가는게 맞는거 같애. 그럴수록 기도하고 성경책보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난 여기 와서 하나님 믿었어요. 전에는 절에 다니고... 그런데 OO할머니가 교회만 다녀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래도 천국에 가는게 좋지요.”

3. 전체적 맥락 속에서의 의미 있는 작업

본 연구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의미 있는 작업에 대한 경험을 시간적 흐름에 따른 맥락 속에서 전체적인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즉,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였을 때의 의미 있는 작업이 점차 죽음에 대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의미가 변화하게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 입소를 하였을 때 의미 있는 작업은 선행과 봉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친구 만들기, 종교 활동이 자신의 과거의 삶에서 이어지는 성공적인 요양원생활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스스로가 ‘성공적인 삶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죽음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의미 있는 작업에 대한 구성요소들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때 경험하게 되는 의미 있는 작업의 목적은 ‘좋은 죽음을 위한 것’이었다.

이 차이의 기준은 간접적으로는 뉴스나 주변 사람들(요양보호사 및 함께 생활하는 노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요양원에서 노화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환되었다. 직접적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몸이 노화로 인해 쇠약해지고 시력과 청력이 감소되면서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다음에 제시한 그림 2는 요양시설에 거주 하는 노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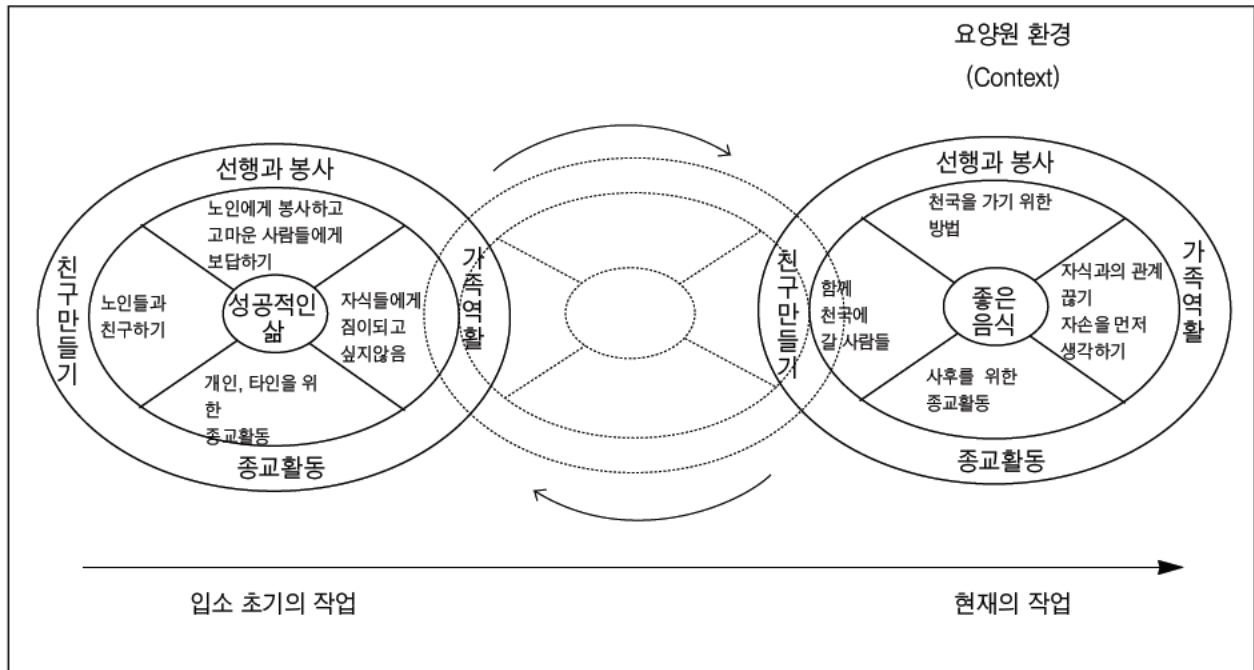


그림 2. 전체적 맥락 속에서의 의미 있는 작업

의 의미 있는 작업에 대한 경험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식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IV. 고 찰

작업치료에서 활동(activity)은 작업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클라이언트(client)에게 의미 있는 활동들이 모여 하나의 작업이 된다(이재신 등, 2004). Evans (1987)는 ‘적극적이고 현재하고 있는 것, 즉 목표 지향적이고 내적 만족을 가져다주고 문화적으로 알맞은 활동에 사람이 종사하고 추구하는 과정’을 작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의미 있는 작업은 선행과 봉사,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친구 만들기, 종교 활동 네 가지로 나누어졌다. 하지만 의미 있는 작업의 하위영역은 입소초기와 죽음을 앞둔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입소초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의미 있는 작업을 탐색하고 수행하게 된

다. 이때 의미 있는 작업은 자신이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의 삶과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을 연결 시켜주는 작업이었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좋은 죽음을 위한 방법들을 찾고 수행하였다. 이때의 목적은 좋은 사후세계를 위한 준비였다. 목적이 전환된 기준은 주변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경험하게 된 주변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시기, 노화로 인해 자신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시기로 다양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세부적인 의미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봉사와 선행은 삶의 보람을 느끼는 등,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선행을 하면 나쁜 사후세계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Teaff(1985)에 의하면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수준은 극히 저조하지만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접촉을 늘릴 수 있고 친구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며 비공식적인 인간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봉사활동의 동기는 다면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배려주의적 동기, 종교적 동기, 타인 지향적 동기, 즐거움 또는 삶의 변화 등의 동기, 사회적 동기 등

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유진, 1996). 본 연구와 비교를 해보면 입소초기에는 Teaff(1985)가 이야기한 박애주의적 동기, 타인 지향적 동기로 봉사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것에는 비슷한 결과를 얻었지만, 좋은 사후세계를 위해서 선행과 봉사한다는 동기의 목적은 의외의 결과였다.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시간적 맥락에서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입소초기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다. 스스로 신체의 노화로 인해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함께 생활하는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조언을 해주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간접적인 접촉을 하였다. 또한 자녀들에게 받은 돈을 모아 자손들에게 주는 입소 전의 연장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가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두 번째는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에서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다. 가족과의 원활했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는데, 자녀들이 보고 싶지만 계속해서 정을 쌓으면 자신이 죽었을 때 더욱 슬퍼할 것을 예견하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오히려 자신보다는 자손에게 더욱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Havighurst(1973)는 노년기에는 잃어버리는 역할, 그대로 남는 역할, 새로이 맡게 되는 역할 등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구분하고 있는데 노인이 되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점차 잃어버리게 되므로 계속 맡게 될 역할과 새로 발견해서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노년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입소초기에는 자신의 잃어버리는 부모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역할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자신보다는 자녀, 자손들에게 관심의 전환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까지 겪었던 부모로서의 남아 있는 역할을 버리고 오히려 자녀와 정을 떼고, 관심을 자신에서 자녀, 자손에게 관심을 전환시키는 것이 새롭게 맡게 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된다.

친구 만들기는 입소초기에 요양원의 특성상 치매노인과 노인성질환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적응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치매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은 자신과 같이 인지기능이 좋은 노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고 처음 와서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노인에게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친구가 된다. 이때에 친구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이야기

를 함께 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는 좋은 죽음을 함께 하는 친구였다. 자신의 임종을 함께할 친구라는 이유에서는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을 위해 울어줄 몇 안 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러기 위해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던 노인들과 화해를 하여 다시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친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노년기에 이르면 자녀들의 성장과 독립, 배우자의 사망, 정년퇴직 등으로 인하여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에 변화를 가져오며 예전에 가졌던 친구관계와 더불어 새로운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Yoon, 1984). 입소초기에는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외로움과 두려움 등이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함께 이야기하는 친구의 역할만이 아닌 죽음을 지켜봐 줄 마지막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다.

종교적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한 종교 활동이다. 스스로 성경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게 되고 영성과 교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에 더욱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 헌금을 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물질적으로라도 갚을 수 있다는 자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한 종교 활동이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쌍하게 여기거나 새로 입소하여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노인에게 기도를 해주었다. 그리고 종교 활동 시간에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전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자신보다 더 잘 믿는 노인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세 번째는 사후를 대비한 종교 활동으로 전도한 노인이 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을 보면서 사후세계에서 함께 만날 사람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후세계를 구조화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짐을 고려할 때 종교가 개인이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 대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김동표, 2006). 본 연구에서 개인을 위한 종교 활동과 타인을 위한 종교 활동은 주로 입소초기에 나타났으며 사후를 대비한 종교 활동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주로 나타났다. Barron(1961)은 노인에게 있어서 종교는 심리적 측면에서 첫 번째는 생활의 의

미성과 중요성을 계속 느끼고 발견하도록 도와주며 두 번째는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각종 상실감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세 번째는 노년기에 잠재해 있는 보상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번째는 임박한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 종교는 노인에게 모든 연령층을 끌고루 사귄 수 있게 맺어주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노인의 소외감을 감소시켜 준다고 하였다. Barron (1961)과 본 연구를 비교해 보면, 입소초기에는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과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과도 비슷한 결과였지만, 주로 네 번째 주장에 초점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입소초기와 죽음을 앞둔 현재의 의미 있는 작업의 구성요소들은 선행과 봉사, 친구 만들기, 가족의 역할, 종교 활동으로 같았지만 그 세부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주로 치매노인에 대한 신체적인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인지기능이 좋은 노인들은 어느 정도 주변사람들에게 소외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인지기능이 좋다는 이유로 치매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관심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최근 작업치료사들이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같이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수행하는 의미 있는 작업은 같았지만 수행하는 목적과 의미는 달랐다. 입소초기에 수행하는 의미 있는 작업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마무리하는 목적이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수행하는 의미 있는 작업은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마무리하고 사후세계를 위한 목적이었다. 연구 결과에서는 자신의 신체적인 노화, 주변사람들의 죽음 등의 이유로 수행하는 의미 있는 작업의 목적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간적인 전환 뿐 만 아니라 많은 이유로 입소 초기 때와 죽음을 앞둔 때의 의미 있는 작업의 목적은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시간적 흐름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 변화하는 상황 전환에 따른 작업치료의 방식과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

V. 결 론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예전과 같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요양시설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마지막 종착지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입소 생활이 지속되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작업도 점차 변화하고 있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요양시설 입소 초기의 봉사와 선행은 주변사람들과 친해지고 요양보호사들과 친해지는 방법이었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천국을 가기 위한 사후 생활의 방법이었다. 또한 입소초기의 친구 만들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말동무가 목적이었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자신의 임종을 지켜봐줄 친구로 변화하게 되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 내에서의 역할은 입소 초기에 연장자, 부모로서의 입장이었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은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과의 정을 깊게 나누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종교 활동은 개인과 타인을 위한 종교 활동에서 사후생활을 위한 종교 활동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작업치료사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중재에서 입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미 있는 작업을 고려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2010년도 장기요양보험 주
요통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귀분, 김인숙, 정미영, 오혜경, 권영숙, 이은자 등.
(1999). 시설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에 대한 음악 요
법 효과. 노인간호학회지, 3(2), 169-185.
- 김동표. (2006). 노인의 종교 활동과 우울에 대한 연구:
대전광역시 노인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
대학교, 대전.
- 민경중. (2009).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책 및
사례분석.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수원.
- 박종환, 권용철. (1989). 노인용 한국판 Mini-Mental
State Examination(MMSE-K)의 표준화 연구. 대
한신경정신의학회지, 28(1), 125-135.
-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서울: 보건
복지부.

- 신경림. (1997). *질적 간호연구방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재신, 이택영, 이지연, 유은영. (2004). *최신 작업치료학 개론*. 서울: 탐메디오피아.
- 이충휘. (2011).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위한 연구방법론*. 서울: 계축문화사.
- 이현주. (2005). 노인부부가구에서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남편의 수발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이혜경. (2008).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정유진. (1996).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동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차주원. (1991). 고려속요의 정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최승환. (2008). 치매행동심리증상에 대한 아로마 요법 효과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서울.
- 통계청. (2006). *장래인구 추계결과*.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09).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Barron, T. (1961). *The aging american: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and geriatrics*. New York: Thomas Y. Crowell.
- Evans, K. A. (1987). Nationally speaking—definition of occupation as the core concept of occupational therap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1(10), 627–628.
- Funaki, Y. Y., Kaneko, F. F., & Okamura, H. H. (2005). Study on factors associated with changes in quality of life of demented elderly persons in group homes.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2(1), 4–9.
- Giorgi, A. (2003).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Dr. A.P. Giorgi 2003 Winter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Workshop*. Seoul.
- Gregory, M. D. (1983). Occupational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among retiree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7(8), 548–553.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Havighurst, R. J. (1973).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Y: McKay.
- Kielhofner, G. (1995). *A model of human occupation: Theory and application* (2nd ed.). Baltimore: Williams and Wilkins.
- Nilsson, I., & Fisher, A. G. (2006). Evaluating leisure activities in the oldest old.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3(1), 31–37.
- Rejeski, W. J., Brawly, L. R., & Shumaker, S. A. (1996).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Exercise and Sport Sciences Reviews*, 24(1), 71–108.
- Smith, N. R., Kielhofner, G., & Watts, J. H. (1986). The relationships between volition, activity pattern,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0(4), 278–283.
- Teaff, J. D. (1985). *Leisure services with the elderly*. Illinois: Waveland Press.
- Yoon, H. Y. (1984). Friendship: The nature and its change over life-span.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2(1), 94–113.

Abstract

Phenomenological Study on Meaningful Occupation of Nursing Home Living Elderly Person

Song, Byung-Nam^{*}, M.Sc., O.T., Jeon, Byung-Jin^{**}, Ph.D., O.T.,
Lee, Jae-Shin^{**}, Ph.D., O.T., Kim, Su-Kyung^{**}, Ph.D., O.T.

^{*}Sunwoo Happy Village Nursing Hom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Objective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s a phenomenological study, and applied Giorgi's technical phenomenology to study the meaningful occupation of elderly persons living in a nursing home. The main question for this research started with "What is the experience the meaningful occupation in elderly persons living in a nursing home?"

Methods :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were elderly persons over 65 years of age with experience in meaningful occupatio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2011 until May 2011, and was genera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re were 7 participants in total. All of the interview data was transcribed and analyzed just as the participants articulated.

Results : The results of the study consisted of 57 semantic units, 11 sub-components, and 4 components. The 4 components are presented below. 'Good deeds and service', 'Role of family members', 'Making friends', 'Religious activities'.

Conclusion : When entering the nursing home, the meaningful occupation aimed at a 'successful life.' However, as time passed, the goal of the patients changed to a 'good death.' In addition, the goal according to this changing, meaningful occupation remained the same, but the factors were different.

Key words : Giorgi's phenomenology, Meaningful occupation, Nursing home